

## 미주 모퉁이돌선교회 기도제목(2023.2.27)

### 1. 성경배달/ 선교 현장에 2 만 8 천여 권의 성경이 배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해 성경 배달은 환경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이 배달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북한에는 새로운 형태의 말씀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중국은 밖에 나와 있는 중국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다량의 말씀을 배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랍과 이스라엘 등에도 다양한 형태의 성경을 보내게 하심으로 2 만 8 천여 권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사야 41 장 4 절에 “누가 시초부터 모든 세대를 불러 이 일을 시행하고 완수하였느냐 나 여호와이니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성경 배달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북한과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퍼신 팔로 친히 길을 내시어 말씀이 필요한 백성에게 보내게 하시고, 아랍과 이스라엘에도 그들의 언어로 준비된 많은 성경을 보낼수 있게 하신 하나님, 금년에도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따라 준비된 성경을 배달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보내지게 하여 주옵소서.

### 2. 구제배달/ 선교 현장에 몇백 톤의 쌀과 밀가루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종식이 요원한 상황에서 북한 지하 교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시로 식량 지원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양의 쌀과 밀가루가 지하 성도들과 그들의 이웃에게 전달되어,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나가는 데 자그마한 도움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수십 톤의 소독약을 보냈습니다. 옥중 성도의 의약품과 생필품을 보냈습니다. 암에 걸린 일꾼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 장 3 절에 “또 내가 나의 참 동료인 너에게 청하노니 이 녀인들을 도우라 그들이 내 옆에서 글레멘드와 나의 나머지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전도에 힘썼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하신 말씀처럼 2022 년에도 어려움에 처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지원하고 위로할 수 있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년에도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위기의 때에 낙심하지 않고 잘 참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긴급히 지원하는 식량과 재정이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늘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 **3. 북한 식량 문제에 숨통이 트이고, 특별히 갇힌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평안도와 황해도 등지의 지방 교화소(우리의 교도소에 해당)에서 수십 명의 수감자가 집단으로 탈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교화소에 돌아갈 식량이 부족한 데다 이마저도 당국자들이 착복하는 바람에 수감자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2 년간 평안남도 개천교화소를 포함해 북한 내 지방 교화소 3 곳의 수감자 700 여 명이 아사 혹은 병사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식량 문제에 숨통이 트이고, 특별히 갇힌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친히 고난을 당하며 시험을 받으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2 장 18 절~ 3 장 1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굶주린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제 노역과 가혹 행위에 더하여 최악으로 치달은 식량 사정으로 인해 수감자들이 집단으로 아사하고 탈출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 그중에서도 특별히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겨 나가게 하소서.

**4. 이동 제한으로 어려움 겪는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무엇보다 복음이 자유로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열 환자가 계속 늘어나 전국적으로 준안전 지역이 평시에 17개 시, 군이던 것이 1~2월에 들어서서는 80개 구역으로 늘어났습니다. 준안전 지역이란 비상방역의 도수를 한층 더 높이고 일체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열이 난다고 담당의사에게 알리면 그 가족은 일체 바깥 출입을 금지하고 아파트나 한 인민반에서 여러 세대가 발생하면 그 지역을 봉쇄 차단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식량난과 약품 부족, 이동 제한으로 어려움 겪는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무엇보다 복음이 자유로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잠시 고난을 당한 후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친히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뒤받침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에게 능력이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11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코로나 확산 조짐을 보이는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식량난으로 기진해 있을 북한 주민에게 양식과 약품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또한 통제 강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지역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가 풀려 북한 내부 일꾼들이 자유로이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이로 인해 지하교회가 더욱 힘을 얻어 든든히 서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5. 외부와 통화하는 자들을 감시의 눈길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특별히 사역자들이 어려움당하지 않고 사역이 위축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 정착한 가족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일가족 4 명이 체포되었다. 이번처럼 전 가족이 끌려간 것은 처음이다. 요즘 보위부, 사회안전부의 지시를 받아 주민 동향을 파악하는 인민반장, 통보원, 안전소조 성원들이 크게 늘어나 이웃끼리도 서로 의심하고 경계하는 분위기이다.” 한국과 전화한 혐의로 통화한 본인뿐 아니라 온 가족이 처벌받는 사건이 함경북도에서 발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외부와 통화하는 자들을 감시의 눈길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특별히 사역자들이 어려움당하지 않고 사역이 위축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들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발견하시고 보호하며 돌보셨고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신명기 32 장 10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과 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외부와 통화하는 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감시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일꾼들과 정보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필요하다면 감시원의 눈과 귀를 가려 주사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현장 상황이 위험할수록 사역자들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